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6월

올해 21개 기본과제 연구 차질 없이 진행



연구원은 6월 20일부터 21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중간검토회의를 갖고 있다.

연구원은 6월 20일부터 21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중간검토회의를 부서별로 갖고 있다.

매년 초에 우리 연구원은 기본과제에 대해 과제별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에 들어간다. 3월 초부터 연구설계세미나를 시작하여 3월 말까지 갖는다. 설계세미나를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연구관련 검토회의를 가지며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해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월 초까지 중간검토 완료

올해는 중간검토회의를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6월 20일부터 시작하여 7월 초에 모두 마칠 계획이다. 중간검토회의는 연구부서별로 부서장 주관으로 열어 원내외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에 반영한다.

연구원은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발간할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각 연구자들은 중간검토회의를 부서별로 마친 뒤에 연구를 수행하여

10월 말까지 연구를 정리해 연구결과세미나를 갖는다. 결과세미나를 마친 연구

자들은 11월 말까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연구를 마무리 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

올해 수행하고 있는 부서별 기본연구과제 수는 다음과 같다. 농산업경제연구센터는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 등 8과제, 농촌발전연구센터는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 개편 방안' 등 4과제,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는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등 4과제, 국제농업연구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 등 4과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부문 전망 모형 구축 연구' 등 총 21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지원부서 혁신리더십 워크숍 가져



관리지원부서 혁신리더십 워크숍을 6월 8일 엑스퍼트컨설팅 연수원에서 가졌다.

혁신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자들은 본원과 부설센터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연구원을 둘러싼 변화와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종합토론에 참석한 최정섭 원장은

연구원은 6월 8일(금) 관리지원부서 실·팀장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전문기관인 '엑스퍼트컨설팅' 연수원에서 실시한 이날 워크숍에는 총 25명의 실·팀장 전원이 참석하여 7시간에 걸쳐 변화관리와 혁신적 사고에 대한 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이 연구원의 조직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구원이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연구책임자급에 대한 혁신리더십 워크숍을 7월 초 추진하는 등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와 고객 모두가 행복한 경영’ 월례 초청강연



행복한 경영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조영탁 대표는 밝혔다.

연구원은 6월 1일 대회의실에서 조영탁 (주)휴넷 대표이사를 초청해 월례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특강에 앞서 “오늘은 6개월 동안 작업을 하여 홈페이지를 오픈 하는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새 단장한 홈페이지가 온라인 성과확산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하여 고객과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휴넷 조영탁 대표이사는 ‘나와 고객 모두가 행복한 경영’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조 대표이사는 “행복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를 리더다운 리더로 세우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리더 육성에 각별히 신경쓰길 당부했다.

조 대표이사는 “늘 고객 중심의 경영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원과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비전 제시가 필수라고 말하며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REI 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6월 15일 중회의실에서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 김연 박사를 초청, ‘ABARE의 일반균형 모형 구조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

최했다.

김연 박사는 ABARE에서 호주 경제 및 농업경제 전망과 정책실험을 위하여 개발·운영하고 있는 계량모형의 구조와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연구원의 농업부문 전망모형 연구 및 농업관측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가능성과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농업부문 계량모형 개발과 관련한 연구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장, OECD세미나 발표



최정섭 원장은 6월 20일 덴마크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하여 식품산업단지와 연구기관을 시찰했다. 6월 25일 OECD 사무국 초청세미나에서 ‘세계화와 한국농업’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뒤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서구입 위한 전시회 성황리에 마쳐

자료정보지원실은 6월 12일, 13일 양일간 본관 다용도실에서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도서전시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전시회에는 전문서적은 물론 교양도서도 함께 비치해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료지원팀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받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감사패 전달

최정섭 원장은 6월 18일 연구원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주)LH 정철용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년퇴임식과 이임식 가져



우리 연구원은 올 상반기에 정년을 맞은 서종혁 선임연구위원, 유승우 연구위원, 이성복 연구위원, 이능완 선임관리원의 정년퇴임식과 임기를 마치고 농촌정보문화센터를 떠나는 진재학 소장의 이임식과 환송연을 6월 29일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연구원 30년사 원고 및 자료 수집

우리 연구원은 2008년 4월 1일자로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갖고 계신 추억의 창고를 열어 보세요.

사진과 육필원고 등 연구원 생활을 기념하며 추억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면 연구원으로 보내 주세요.

유용하게 활용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 수집자료: 육필원고, 연구원 관련 서류, 사진, 기념품, 각종 사료

□ 수집원고: 연구원 생활 추억담, 기타 30년사에 담겨야 할 원고

□ 담당: 간사 정민국(02-3299-4263), 조태희(02-3299-4226)

* 자료와 원고를 제공하는 분께 기념품과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DDA 협상 타결의 조건

임 송 수 연구위원

2007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라운드를 마친다는 목표 아래 활발하게 추진하던 협상이 다시 한번 뒷서리를 맞았다. 6월 19일부터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G4(미국, EU, 브라질, 인도) 회의가 3일 만에 결렬되었다. 2006년 8월처럼 협상 중단이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그 타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6년간 난항을 겪는 협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인 협상 원칙에 비추어 현 상태를 진단하고 협상 타결 요건을 밝혀 보자.

실제로 원하는 것에 집중

첫째, 주장(position)보다 실제로 원하는 것(real interest)에 집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이 원하는 관세와 보조 감축률을 제시하고 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실제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야 절충과 교환으로 갈등을 없앨 수 있다.

G4 회의에서 미국과 EU는 개도국의 공산품(NAMA) 관세감축 계수(관세 상한)로 18을 요구하였으나 브라질은 30을 고수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관세감축이 개도국 간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의도는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 개도국 시장에 대한 공산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이 분야에 협상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브라질과 인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경계한다. 중국산 제품이 관세감축으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자국 시장을 잠식하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개도국은 미국의 농업보조가 22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에 미국은 170억 달러까지 양보하였으나 아직 그 격차가 크다. 인도는 보조로 생산한 미국 농산물이 국민의 60%에 이르는 자국 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태도이다.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은 농산물 수출에도 관심이 높다. 특히 브라질은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경쟁국으로 성장하였다. 2004년에 미국의 면화보조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것도 브라질의 수출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절충이 개도국의 NAMA 계수 25와 미국의 농업보조 150억 달러 선에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양쪽의 분야별 이해관계가 교환되어야 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의 대안보다 나은 DDA 인식

둘째, 협상 타결이 다른 최상의 대안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가치창조 과정(value creating process)을 밟아야 한다. DDA 협상이 표류하면서 FTA 같은 지역협정이 붕괴 터지듯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협정이 WTO와 같은 다자협정을 대체하지 못한다. 특히 경제력이 약하여 FTA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도국에 다자협정은 공통의 무역규범 속에 공정한 경쟁과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WTO는 농업보조와 비관세장벽을 규율한다. 그래서 WTO는 개도국에 더욱 유용한 국제 규범일 수 있다.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협상 타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찾은 균형이라도 대안보다 낫다면 서로 타협하여 결합이익(joint gain)을 실현해야 한다. 수출보조를 없애고 최빈 개도국(LDC)의 수출 농산물에 무관세와

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한 것도 이미 상당한 진전이다.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선택

끝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개도국이 요구하는 특별품목 설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특별품목의 지정에는 목적에 걸맞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2005년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G33 그룹은 16개 지표(세부 지표로는 22개)를 WTO에 제안하였고, 2007년에는 이를 12개 지표로 줄였다. 문제는 어떻게 선진국이나 수출 개도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특별품목을 지정하는가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요구는 합리적인 선택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으며 협상 타결을 저해한다.

더 나아가 지금 사용하는 보조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이나 현재의 실행 관세율에 미치지 않는 관세 감축률을 받아들이겠다는 개도국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적다. 협상은 주고받기를 통하여 이익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협상은 모두가 이기는(win-win) 게임이라고 한다. 지금도 러시아와 이란 등 29개국이 WTO 회원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벌써 공은 G4에서 WTO로 옮겨 갔다. 이제부터는 영향력이 큰 4개국만이 아니라 150개 WTO 회원국 모두가 제네바에 모여 협상해야 한다. G4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6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농업협상회의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도 7월 중순으로 일단 연기되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그만큼 줄었지만 급진전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협상 원칙을 되새기며 합리적인 선택을 준비해야 하겠다. **R**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필수

최 경 환 연구위원

올해도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다. 지구 곳곳에서 홍수, 가뭄, 화재, 지진, 황사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벌써 강원과 경북 등에서는 우박으로 많은 농작물 손실을 가져왔다.

안정농사 위해 재해보험 필수

몇 년 전 우박피해 현장을 쫓아가 보았다.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바카지에 구멍이 날 정도이니 연약한 밭작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 우박피해도 그때 못지 않다. 사실 외국에서는 우박이 가장 위협하여 우박보험이 발달해 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고가인 비행기도 우박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기상관측이 정교해졌다고 하나 아직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 더욱이 농업은 특성상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자연조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 풍흉이 결정된다. 풍년 농사가 농가의 고소득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흉년이 되면 농가가 소득을 확보할 기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풍년 농사는 농가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재해는 사전 대비가 최선이다. 재해에 강한 작목이나 품종을 선택하고 비배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사전 대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전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재해보험이다. 앞으로는 각종 재해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농사를 지으려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재해보험 가입은 좋은 품종, 적절한 비료와 농약 등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항목인 것이다.

재해보험의 여건은 농업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정도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2001년 처음 사과와 배 두 품목

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하반기에는 밤, 키위, 자두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벼에 대한 시범사업도 지난해부터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본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우 빠른 확대 과정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대내외 상황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급변하는 국제 여건의 변화와 아울러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재해가 농업인들의 영농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보험, 개선대책 마련 필요

농업재해보험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경영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는 우리나라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해대책의 기본방향을 『재해구호 + 재해보험』의 이원구조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이재민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보전은 재해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재해지원을 하였지만 지원받는 농업인들은 풍년에 불과하다는 불만이었다. 이에 직접 재해를 지원하던 재정을 재해보험의 보험료로 지원하여 재해 발생 시에는 농업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지난해부터 소방방재청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도 그 일환이다.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왜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지, 가입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보험 설계가 당초 취지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확대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농림부는 2013년까지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정 자체로만 본다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준비작업의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매년 몇 품목씩 검토·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힘은 힘대로 들면서 속도는 나지 않는다.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준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실시를 준비하며 준비가 완료된 품목부터 재해보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지전’ 말고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2013년에 당초 계획한 30개 품목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과와 배를 제외하면 가입률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상재해(주 계약)가 태풍과 우박에 한정되어 있고, 품목별 특정재해는 특약형태로 되어 있어 품목별 재해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재해 유형이 다르다는 점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 영세농가를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현행 보험상품들을 개선하므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FTA 협상 동향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경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 주요 국가와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 FTA 정책의 대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아세안과의 FTA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열린 여덟 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2일에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추가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나 2007년 6월 말에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명 이후에 양국 행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하게 된다. 양국 국회에서 일부 비준 반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하반기 중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비준이 완료되면 한·미 FTA는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는 양국 모두 불확실한 상태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협상은 2005년 2월 1차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7년 5월까지 17차례의 협상이 열렸다. 상품분야 협상은 2006년 4월에 개최된 11차협상에서 타결되어 같은 해 8월에 개최된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했다. 한·ASEAN FTA 상품분야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회 동의는 2007년 4월에 완료되어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상품분야 이외에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07년 하반기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는 대부분의 민감품목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폭을 최소화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모두 71개(HS(세번) 10단위 기준)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현행관세가 50% 이하인 사과, 배, 오렌지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2016년까지 50%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EU, 캐나다와의 FTA

EU(유럽연합)는 우리나라가 FTA 체결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대경제권 국가 중 하나이다. EU와의 FTA는 2006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예비협의, 2006년 11월에 개최된 공청회, 2007년 5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5월에 공식적으로 협상이 선언되었다.

한·EU FTA 1차협상은 2007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어 협상일정,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협상은 2007년 7월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차협상에서는 협정문과 상품양허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EU와의 협상은 민감한 분야가 적기 때문에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협상에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2005년 7월에 시작되어 모두 열 차례 개최되었다. 캐나다의 한·미 FTA 협상 내용을 한·캐나다 FTA에 반영시켜 자국이 우리나라 시

장에서 미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 협상력을 모으고 있다. 10차협상에서 농산물 미합의 품목 242개 가운데 80여 개가 합의되어 남은 품목은 160개 정도이다. 미합의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취급하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와 곡물(보리, 대두 등)로 수출 규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캐나다와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어 캐나다는 한·미 FTA 타결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와의 협상도 조기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및 기타 국가와의 FTA

인도와의 FTA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여섯 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7차협상은 2007년 7월에 인도에서 개최되며, 상품양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 모두 농업분야를 민감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이익을 볼 분야가 농업 등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인도 FTA는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민간공동연구를 거쳐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연구가 종료되면 연구결과에 따라 공식협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빠르면 2008년부터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는 2007년부터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폭과 관련된 입장차이가 커 교착상태에 있으며 협상 재개 시기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R**

세계 곡물가격 폭등의 배경과 전망

김태곤 연구위원

세계 곡물시장에서 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에서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바이오연료용 수요증가가 동시에 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공급 감소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아니라 수요증가에 의한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현상이다.

곡물가격은 최근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들어 시카고시장에서 지난 2월 22일 옥수수 가격이 부셸당 4,345달러로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5월 25일 대두 가격이 8,125달러로 2년 10개월 만에 8달러를 상회하였고, 대두유 가격이 23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어서 6월 14일 소맥 가격이 6,065달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용 등 새로운 수요증가가 가격상승 주도

가격상승의 경로를 보면, 호주에서 한발에 의한 소맥 감소로 지난해 10월부터 소맥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요면에서 중국과 인도 등 인구대국에서의 소비 증가와 바이오 연료 등 새로운 수요 증가 등에 의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식부면적을 두고 옥수수와 경합하는 대두는 미국에서 옥수수 식부증가에 따른 대두 식부감소로 대두 가격이 상승하였고, 세계 대두의 94%가 대두유로 가공 소비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두유 가격이 폭등하는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곡물수급은 2000년 이후 수급긴박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는 1인당 소비증가와 인구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생산은 정체와 변동을 반복하고 있다. 2004년 미국에서 생산 증가로 인해 일시 수급이 호전되었으나, 이후 다시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부족분은 재고로 충당된 결과로 재고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USDA)에 의하면, 세계 재고율은 2000년 30.4%에서 2007년 14.5%로 전망하고 있다. 즉 수급긴박에 따른 가격상승은 2000년 이후의 누적된 재고감소와 최근의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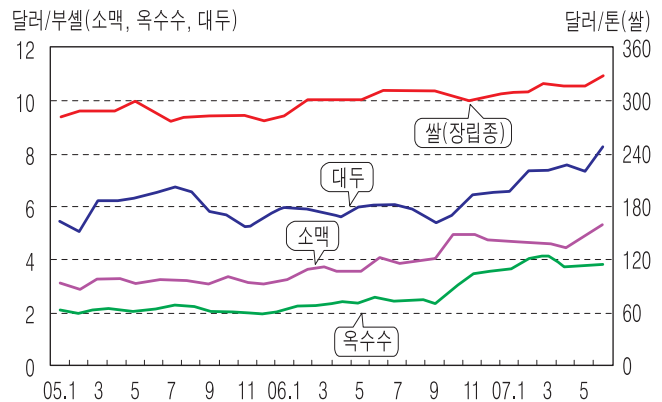
여기에 추가하여 새로운 요인이 하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시카고시장에서 시스템형 거래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곡물시장에도 투기자금(헤지펀드)이 유입, 가격상승기조에 편승하여 시장을 더욱 교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곡물수급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생산면에서 수확면적과 단수가 중요한 변수이나 환경적인 요소나 지구온난화 등에 의해 생산증대는 제약을 받고 있다.

수요면의 변수는 총인구, 1인당 소비량, 연료용 수요 등이다. 세계 인구는 2005년 65억명에서 2050년 91억명으로 UN은 전망하고 있다. 또 1인당 소비량은 소득요인으로 축산물 등으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소득이 올라가면 곡물에서 축산물로 소비패턴이 변한다. 축산물 1kg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을 옥수수로 환산하면, 계란 1kg 생산에 옥수수 3kg가 소요된다. 더구나 닭고기는 4kg, 돼지고기는 7kg, 그리고 쇠고기는 11kg로 급증하게 된다.

세계 곡물가격 추이



주 : CBOT 및 태국무역위원회의 매월 제1주말 가격임.

여기에 바이오에탄올 등 연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에 의하면, 미국에서 연료용 옥수수 수요는 2005년 4,100만톤(생산량의 14%)에서 2016년 1억 1,000만톤(동 31%)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감소하여 세계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연동되어 대두 가격도 상승하는 구도는 계속될 것이다.

기상요인이 가세하면 국가 간 곡물 쟁탈전쟁 치열

곡물 가격의 상승은 다양한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옥수수 관련 제품은 식용품, 음료수, 빙과 등을 비롯하여, 종이류, 플라스틱, 약품 등 관련 제품과 가축 사료용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료 가격과 축산물 가격 상승에 직결된다. 대두는 주로 식용유로 소비되지만, 관련 제품으로는 마요네즈, 사탕, 조미료, 면, 빵, 과자류, 냉동조리식품, 사료, 유기질 비료 등 다양하다.

특히, 금년은 기상조건이 시한 폭탄이다. 동부 태평양의 적도부근에서 해수온도가 평년이하로 떨어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라니냐는 북반구에 여름철 고온건조가 특징이며, 곡물생산에 대한 영향은 엘리뇨를 능가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소맥 산지에서 한발로 감산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감산이 겹치면 가격 폭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앞으로 주요 수입국간 곡물확보를 위한 쟁탈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R]

6월 농정 주요 동향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상(FTA), 6월 1일 발효

2003년 10월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후 3년여 동안 13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체결된 한·ASEAN FTA가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번 FTA는 ASEAN 10개 회원국 중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와 우선적으로 발효되었고, 현 단계에서는 상품 부문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완결된 FTA'는 아니다. 그러나 인구 5억의 거대시장이자 한국의 5대 교역권 중 하나인 ASEAN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5,224개 품목 중 4,742개 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개방하였고 이는 수입액 기준으로 91.6%에 해당된다. 또한 초민감품목 200개를 포함한 482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였다. 10개 회원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이행 스케줄을 적용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2005년 ASEAN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8억 4,392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2%에 그쳐 비중이 매우 작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 895개 품목 중 농산물 171개, 수산물 21개, 임산물 8개 등 200개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였고, 전체 민감품목군 482개 중 315개를 농림수산물에 배정하였다. 이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액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ASEAN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해 '완전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 경유를 방지하였다.

현 단계에서 한·ASEAN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7월 중에 발효될 예정인 중국·ASEAN FTA와 안전성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우박 피해와 농작물재해보험

지난 6월 8일 대규모 우박 피해가 경북 6,777ha, 강원 957ha, 경남 162ha에 이르는 지역에 발생하였다. 피해지역 및 농가에 대해 병충해 방지, 응급복구 등이 조치가 실시되었고 특별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과실은 수확기 가공용으로 수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안정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실시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농가와 가입률이 2001년 8,055호, 17.5%에서 2006년 27,419호, 24.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보험 적용 대상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뽕 등 7개이며 올해부터 밤, 자두, 키위

에 대한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험적용방식은 특정위험방식으로 태풍·우박은 필수 가입이며 여기에 가입한 농가는 봄 동상해·가을 동상해·집중호우·과수 보상 중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모든 재해로 인한 생산액 피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 상품을 금년 9월에 도입할 예정이며 대상 품목을 2011년까지 30여 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충분한 재원 확보, 사과와 배에 집중된 작목 편중 현상 개선, 신속하고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 기준 확립,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필요하다.

종자산업의 최근 동향과 대내외 여건

최근 수입 당근 종자가 국내 당근 종자를 빠르게 점령해 가고 있다. 일본 종묘회사의 당근 품종인 베타라치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선호가 높아, 종자가격이 국산에 비해 약 2~6배 비싼데도 생산농가의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외국 종자회사도 국내 당근 종자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어 해외 종묘회사의 국내 당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자산업은 농업부문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신 품종 육종의 연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신 품종 육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져 상업자본의 종자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식물신 품종보호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작물에 대한 품종 보호권이 인정될 예정이다.

대내적으로는 1998년 새로운 종자산업법이 제정됨으로써 품종보호권 도입 등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한 기본 틀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농업 선진국' 진입을 위한 품종 및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종자산업을 농업분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1조 3,487억 원을 지원하는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 농업연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작물 34종 1,679점의 우리나라 토종 종자가 연내 농촌진흥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들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종·재래종으로 존재하다 해외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국내에서는 멸종된 상태다. 이들 종자의 반환은 유전자원 활용을 통한 우수 품종 육성과 신물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관측결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결과와 주요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이어 올해에는 관측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측정보 동영상은 매월 관측결과를 요약하여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그림이나 표 자료와 함께 해설 식으로 제작, 연구원과 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6월 과일관측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과채, 채소, 축산 분야의 관측결과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품목 생산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연구결과 중 이슈가 되는 과제를 선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시사농업해설과 연구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강의한 것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다.

바이오에너지와 세계사료 곡물시장 변화

연구원은 6월 11일 중회의실에서 '바이오에너지와 세계사료 곡물시장 변화'란 제목으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성명환 연구위원은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으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유례 없는 '식량인플레이션' 시대에 직면했다"고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바이오 연료 시장의 현황과 전망, 세계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현황과 전망, 중장기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 변동 요인, 세계 사료곡물 시장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농업관측

연구원은 6월 28일 중회의실에서 '위성

정보를 활용한 농업관측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으로 농경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권오복 연구위원은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관측을 하는 것이 과연 경제·기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유무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

연구진 동정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6월 22일 서울대 농생대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농업교육학회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6월 5일 강원농수산포럼세미나에서 '향토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병률 연구위원은 6월 8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안심

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공급 및 직거래 확대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6월 14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축산경영학회 2007년도 하계심포지엄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철수 연구위원은 6월 27일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 밤재배자협회 워크숍에서 '대 중국 FTA와 한국 밤 대응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류상모 연구원은 6월 14일 상주감시시험장에서 열린 단감지도연구회 과제 교육에서 '단감 수급 동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연구원 인사

△(보직인사) 부원장 김정호, 기획조정실장 최지현,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 박현태,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장 오내원, 행정실장 옥치목, 감사담당 김광진, 감사담당(부설센터) 송진철, 총무인사팀장 심금섭

△(신임) 초빙연구위원 허윤진(농촌발전연구센터), 선임관리원 김재황, 2급관리원 조경익(농촌정보문화센터)

주요 보직 인사 단행, 부원장에 김정호 박사



김정호 부원장



최지현 기획조정실장



박현태 농산업센터장



오내원 구조·경영센터장



옥치목 행정실장

연구원은 7월 1일자로 부원장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에 박현태 연구위원,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장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행정실장에 옥치목 선임관리원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김정호 부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교토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원에 들어와 농업경영, 재정, 정책분야 연구를 하였고, 동향분석실장, 농정분석실장, 농업구조연구센터장,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지현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식품산업과 소비, 유통, 과실수급 등의 연구를 하였

고, 기획조정실 연구관리역,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다.

박현태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원에서 농업경영, 원예산업, 환경농업 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오내원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원에서 농가소득정책, 지역농촌개발 분야 연구를 하였고,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농림부장관 자문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옥치목 행정실장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연구원에서 기획예산팀장, 관리회계팀장, 총무인사팀장을 역임하였다.